

# 사업회 소식

## 사업회, 제 3기 유영표 상임 부이사장 취임



지난달 5일(목) 오전 11시 사업회 대회의실에서 유영표(59세) 제 3기 상임 부이사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 유영표 부이사장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소중하게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리고 그 뜻을 기리는 일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몫”이라며 “앞으로는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영표 부이사장은 1970년대 서울대 재학 시절, 교련반대 학원 민주화 시위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왔으며 서울대 졸업 후, 매일경제신문사 출판부장, 매경 바이어스가이드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 유영표 부이사장 주요 경력

- 서울대 문리대 졸업( '80)
- 교련반대 학원 민주화 공명선거 캠페인 등 시위 제적( '71)
- 김상진열사장례집회 주도 제적( '75)
- (사)노동문제연구원 연구원( '77~ '80)
- 매일경제신문사 출판부장
- (주)매경바이어스가이드 대표이사( '81~ '04)
- (현)김상진기념사업회 고문
- (현)7동지회 명예회장
- (현)제정구기념사업회 운영이사
- (현)참여연대 운영위원
- (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취임( '08년 6월)

## 사업회 평생학습 관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방문

지난달 13일(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팀(평생학습·변화관리를 위한 컨설팅 진행)은 경기도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학습조 운영'에 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공단 HRD 사업팀 홍성렬 팀장의 진행으로 모임이 진행되었고 디자인팀은 '학습조 운영에 관한 경영진의 지원, 학습조 운영 후 직무능력의 변화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학습조 운영에 관해 선진적인 경험을 가진 공단의 경험을 배우는 자리를 가졌다.



## 제 2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사업회는 지난달 10일(화)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6·10민주항쟁 제 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박형규, 이돈명, 박용길, 청화, 김병오 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과 이소선, 박정기, 배은심 등 민주화운동 유가족 그리고 사회 각계인사, 정관계 인사,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21년 전, 국민의 힘으로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87년 6·10민주항쟁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지선 스님(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대표 이사장)의 경과보고, 대통령 기념사(행정안전부장관 대독),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교어린이 합창단의 노래공연과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른 ‘아침이슬’ 합창으로 마무리되었다.

함세웅 이사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현 정부와 보수언론의 자성을 촉구하는 등 6월정신에 입각한 시대정신의 좌표를 제시하였다.



## 2008 UN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대회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UN이 정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지난달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문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의료적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기념대회를 열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고문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정책이나 지원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시민사회 또한 ‘민주화 20년’이라는 수식이 무색하리만큼 고문피해자의 치유에 무관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념대회는 고문피해자들이 말하는 ‘차마 말할 수 없던 사실’들을 경청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 사업회 소식

## 합수 윤한봉 선생 1주기 추모전시회 개최



5·18민중항쟁의 마지막 수배자이며, 항쟁에 빛진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 이기도 했던 합수 윤한봉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평생 투옥, 수배, 고문, 망명의 난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해 혼신의 노력을 바쳤던 선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자 사단법인 들불열사 기념사업회와 합수윤한봉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사업회가 후원하는 합수 윤한봉 선생 1주기 추모전시회가 지난달 28일 토요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추모전시회에는 손장섭, 신학철, 임옥상, 민정기, 이종구 등 40여 명의 작가, 60여 점이 출품될 예정이며 작품판매 기금은 이후 선생의 문집 발간 사업 등 합수 윤한봉선생기념사업회와 들불열사기념사업회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 한국현대사 이동 순회전시

기념사업팀은 한국현대사와 한국 민주화운동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인물로 보는 한국현대사'와 '다이내믹 한국현대사' 2종으로 구성된 이동 순회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과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지원하고자 중등학교 역사(한국현대사) 교사에게 한국현대사 이동전시 홍보 리플렛을 발송하는 등 공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와 고려대 민주동문회는 김귀정 열사 추모문화제·고려대 민주열사 추모제를 맞이하여 이동전시를 실시하였으며, 충북 제천의 간디학교는 한국현대사 교육의 보조재 활용을 위해 이동전시를 요청하여 전시콘텐츠를 지원하였다. 추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전시 콘텐츠를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도시와 각 학교에 지원·제공할 예정이다.



##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워크숍



교육팀은 지난달 13일(금)부터 14일(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교사연수 기획팀, 5·18기념재단·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실무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교사, 연수진행 전문가, 교육 활동가들과 함께 기획팀을 구성하여 지난 4개월 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보완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지녀야 할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탄생한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는 이달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주시민교육 수업 프로젝트 협약식



교육팀은 지난달 18일(수)에 광주자연과 학교등학교와 민주시민교육 수업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학교 1학년 조리와 학생들은 임광호 교사의 지도로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역사·재량 수업을 통하여 사회참여 수업프로젝트 '대니 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삶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원성을 이해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 수업프로젝트는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문화예술교육의 통합교육과 5·18기념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결된 열린 학교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